

대안신당, 호남 기반 '제3세력 통합' 드라이브

내일 광주서 현장최고위... '호남 대표정당' 부각 "바른미래·민평당과 설 연휴 전 3당 통합 논의"

대안신당은 공식 창당 이틀째인 13일 제3세력 통합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호남 기반 정당으로서 정체성 부각에 나섰다.

대안신당은 옛 국민의당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호남세력과 민주평화당과의 재규합을 제3세대 통합을 위한 1차 목표로 삼고 3당간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설 연휴 전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과 함께 '다운드 테이블'을 최대한 만들 것"이라며 "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의원들 사이에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유성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별도 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제3세대 정당 통합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식화할 방침이다.

대안신당은 최경환 대표가 전날 창당 대회에서 '제3세력 통합 추진'을 제안한 것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날 공감을 표한 것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최 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손 대표의 화답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통해 건강한 3지대를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앞으로 대안신당 통합추진 위원회를 통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은 아울러 호남 기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부각에도 힘을 쏟으며 호남 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안신당은 창당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후 국회의장 예방에 이어 현충원 참배를 하고,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연다.

15일에는 호남의 '심장'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한 뒤 현장 최고위를 열어 '호남 대표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방침이다. /서울=강병은 기자



사법연수원 마지막 수료식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사법연수생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레이다

이정희 "광주형일자리법 통과 환영"

이정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는 13일 "광주형일자리법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일명 '광주형일자리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수익계약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지원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남구 대촌에 중점 육성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형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이병훈 "비례자유한국당 불가는 당연한 귀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13일 선관위의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발표와 관련해 "참 민주주의로 가는 변곡점에서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당연한 귀결이다"며 환영했다.

이 예비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폐해를 막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수렴하지는 취지에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매우 긴요한 조치이다"며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려는 '비례자유한국당'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비합당한 정치적 술수임을 지적해왔으며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법이 정치적 술수를 제어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은 반성과 아울러 국민을 호도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이용빈 "지역 현안·의제, 정책 공약화 추진"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13일 광산지역 직능별 단체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광산구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

회 회장 40여명과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부족 현상이다"며 "정부가 보육과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눈높이만 맞춰도 저출산 문



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모들이 일하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민형배, 예비후보 후원회 공식 등록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3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산구를 국회의원에비후보자 민형배 후원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은 박유환 고려인광주진료소장이 맡았다. 박 후원회장은하남동에서 첨단박유환내과를 운영하며 고려인들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정치인 후원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 예비후보는 "첨단단지에서 오랫동안



안 병원을 운영해 온 박 회장은 고려인들의 진료봉사를 위해 고려인마을과 가까운 하남동으로 병원까지 이전했다"며 "광산구민과 고려인 진료봉사에 이바지한 훌륭한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돼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김수정, '남도정치 미래전략' 출판기념회

김수정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저서 '2020 남도정치 미래전략'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개그맨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의 축전 및 축사가 줄을 이

었다. 이송욱강진군수, 김철우보성군수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전남 발전에 대한 김수정 예비후보의 비전을 응원하고, 저서에 담긴 다양한 내용에 주목했다.

출간된 '2020 남도정치 미래전략'은 김 예비후보가 20년 이상 정당활동을 통해 익힌 정치경험과 도시농부로서 15년



이상 실제 경작을 해오면서 체감한 농어촌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엮어냈다. 김 예비후보는 환영사를 통해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의 상생발전과 공존을 위한 지역민 연대를 이뤄내야만 실질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조오섭 "복구, '4차산업 교육 허브'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하 정보원)과 4차산업 진로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를 북구 오치동 자연과학고로 유치해 복구를 4차산업 교육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시교육청 청사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원이

이전하게 되면 시교육청은 현청사 자체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원과 진로센터를 북구 오치동에 유치해 AI집적단지와의 연계된 4차산업 교육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원 이전과 진



로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발맞춰 초·중·고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AI 기초역량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련된 예산확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강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이형석 "검찰 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검찰 학살 인사, 전두환 정권보다 야만적이다 등

방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역사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전두환 정권의 검찰은 군사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권력형 공룡검찰을 만든 주범이었다. 정권과 연계해 비리를 양산한 검찰을 만든 장본인이 군사독재 시절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이야말로 국민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시행해 판파수사·과잉수사·능장수사 등 부처절 한 검찰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이석형, 시민 선대위원장 4,150명 모집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13일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광산 만들기에 함께 할 시민선대위원장 4,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 한분 한분이 이석형의 시민 선대위원장이 되어 주민화

합을 도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공극적인 목적은 사람이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조연은 광산구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된다"고 많은 참



여를 호소했다. 이석형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1일 발대식을 갖고 1차로 시민선대위원장 500명을 위촉했다. /윤영봉 기자

조계원, 여수서 출판기념회...총선 행보 본격화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지난 12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조계원의 여수생각'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을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 정찬용 전 참여정부 인사수석, 일본군 성노예 만행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 등 1,500여명의 구름인파가 몰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축하했고, 이해찬 당 대표가 직접 축전을 보내 응원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축하영상 메시지에서는 이재호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정성호, 김경협, 기동민, 박홍근, 김영진, 이용득, 김병욱 국회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들이 응원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

이경자, 홈페이지 방문자 1천명 돌파

이경자 정의당 광양·곡성·구례 예비후보의 홈페이지 방문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13일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오픈한 'http://이경자.kr'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이날 오후 2시 기준 1,146명을 기록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책·인물 중심 선거 마케팅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후보자들

문화 확산'을 선거운동의 모토로 삼고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듣자, 뭐자, 이경자', '네이버 밴드·페이스북 계정 등 다양한 SNS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관권·금품 선거, 상호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더 이상 선거 마케팅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후보자들



이 앞장서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4월 15일까지 선거법을 지키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깨끗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